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sagreement of Family Finances and Related Variables

창원전문대학 가정관리과
강사 : 鄭 善 姬

Dept. of Home Management
Changwon Junior College
Lecturer : Sun Hae Jung

창원전문대학 가정관리과
조교수 : 吳 貞 玉

Dept. of Home Management
Changwon Junior College
Assistant Prof. : Jung Ok Oh

— 목 차 —

I. 서 론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II. 이론적 배경	2. 조사도구
1. 가계의 재정관리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선행연구	IV. 연구결과 및 분석
3. 가계의 재정불일치와 관련변인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III. 연구방법	2. 조사결과 및 분석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a tendency of financial disagreement and to identify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financial disagreement of husbands and wives.

For this purpose, reviewing literatures and empirical research were conducted. The sample was selected from the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Masan, Changwon and Jinhae. Among 336 respondents, 111 husbands and 225 wives were finally selected as datum source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tatistical method such as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 tile, ANOVA, Pea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 1) Most husbands and wives showed the high level of financial disagreements.
- 2) As for the related variables,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such as husband's education, family income, communic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ur had turned out to be significant on the financial disagreement of wives. As for the husbands' financial disagreement, husband's education and family incom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3)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ur and the financial disagreement of husbands and wives($r = -0.22, -0.35$).

4) The family characteristics which were the best predictors of financial disagreement included : family income, financial management behaviour of husbands and wives.

I. 서 론

재정(Personal finance)이란 개인의 목표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의 성취는 다양한 금전관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며, 개인의 재정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은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의 역동적 변화(dynamic change)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다(Stillman, 1979).

즉,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사회체제와 상호작용하는 가족구성원의 인적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생활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계의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사회적, 개인적 변화에 대한 융통성과 감수성이 요구된다.

Freeman과 Due(1961)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두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한계효용원리(marginal utility principle)이다. 가족은 재화를 사용하여 만족감을 얻는 한, 주어진 목적을 위해 소득을 분배한다. 그러나 다른 재화의 사용으로 더 큰 만족감을 얻었을 경우, 새로운 목적을 위해 지출이 변화할 것이다. 둘째, 가계는 주어진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가족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내의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가족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는 각 개인의 가치, 목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내의 의견차이나 불만족을 느낄 수 있다. 즉, 사회적, 개인적, 관리적 원인에 의해 가계의 재정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연하면, 생산과 자급자족의 단위에서 국가의 경제상황에 의존하는 소비형태로 변화한 오늘날의 가계는 국민생산, 인플레이션, 물가변동, 실업, 이자율등의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소득자의 사고, 사망, 불구, 질병등의 개인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들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Kyrk 1959 ; Oppenheim, 1965).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과 생활표준이 변화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규범적 생활표준과 비교하여 불만이 야기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절대소득수준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과 같은 소비수준을 유지하려 한다면(이기춘, 1986 ; Hazlitt, 1973) 가족구성원은 경제적, 정신적 재정불일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은 가정생활주기 각 단계마다 새로운 욕구의 발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Wilensky(1976)는 자원보다 욕구가 더 큰 시기를 "life-cycle squeeze(재정압력이 큰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가계가 재정불일치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은 관리자가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금전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Fitzsimmons & F.Williams 1973 ; Wright, 1978). 즉,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출 및 저축의 결정은 보잘것 없는 항목의 미미한 금액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한 비용, 편익의 분석이 불필요하게 보이는 수가 많다(김영숙, 1983).

이러한 원인에 의한 가계의 재정불일치는 개인적 스트레스, 고질병, 결혼생활의 불화, 아동학대, 이혼등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Brenner, 1973 ; Heck, 1981 ; Shepard, 1984 ; Ulrichson & Hira, 1985). 따라서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연구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생활의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의의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또한 최근에 와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나 기능의 분리현상이 적어지게 되고, 남편이 가계의 실

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D.L. Rosen & D.H. Granbois, 1983)로 보아 남편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가계의 재정불일치와 관련 있는 사회인구학적·사회심리적 특성과 재정관리 변인을 파악하고, 재정관리변인이 사회인구학적·사회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경제적 지출에 대한 불일치와 관련된 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적 문제를 가진 가정을 위한 치료법, 카운셀링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계의 재정관리

개인과 가정이 마주치게 되는 경제적 문제는 욕구의 변화에 따른 시간, 에너지, 금전의 부족과 자원사용방법 등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관리가 필요한 것이다(Varcoe, 1990).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을

분배·조정하는 목표지향적인 조직시스템이다(Nickell, Rice and Tucker, 1976). 재정관리는 첫째로 현실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정 계획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둘째, 계획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셋째, 지출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고 넷째,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재정적 어려움이 새롭고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있다(West and Wood, 1972).

Odiorne의 목표원리에 재정관리의 원칙을 적용한 MFS(Management for Financial Success)의 의사결정 분석모형을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이 도표는 재정관리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금전을 사용하는 방법과 재정관리의 영역을 설명하여 준다. 개인이나 가정의 자원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MFS의 10 단계는 다음과 같다(Nickell, Rice and Tucker, 1976 p276).

첫째, 생활에 만족을 주기 위해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 소득, 인적, 경제적, 환경적 자원과 같은 생활의 전반적인 목표로서 성공을 정의한다.

둘째, 자녀의 대학교육, 내집마련, 부채감소, 여행등과 같은 목적과 하위목표를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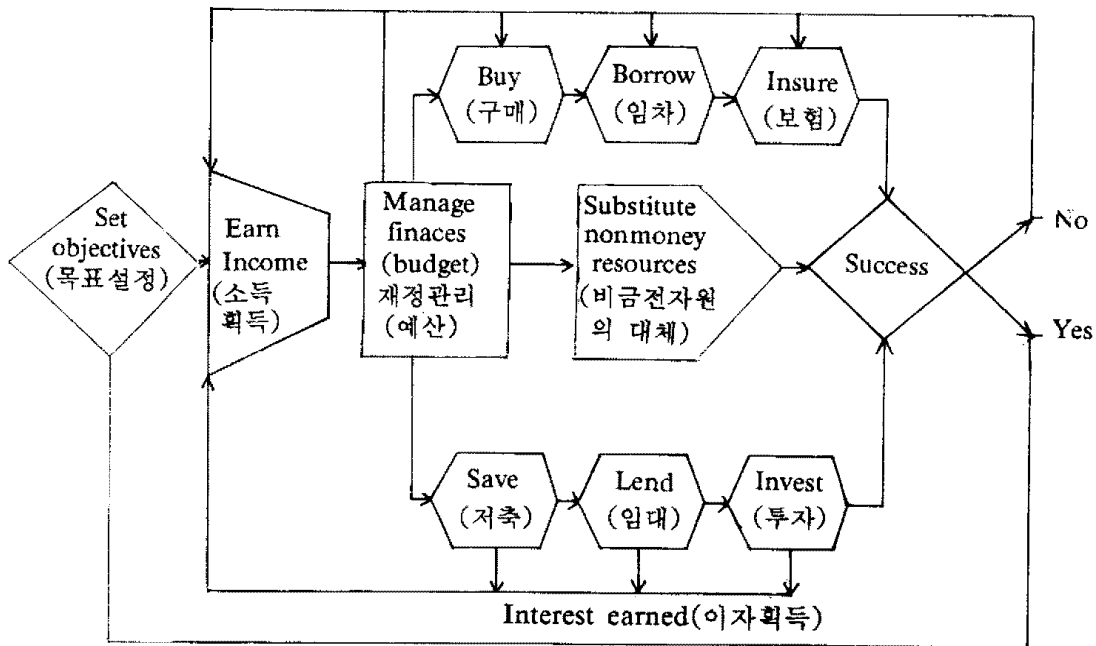


그림 1. MFS(Management for Financial Success)의 모형.

셋째, 목적의 우선 순위와 시기를 정한다.

넷째, 비용을 산출한다.

다섯째, 금전소득, 크레딧, 순자산등의 재정 자원을 분석한다.

여섯째, 행동계획을 명확히 수립한다.

일곱째, 모든 노력을 조직한다.

어덟째, 활동을 통제한다.

아홉째, 적절한 기록을 한다.

열째, 규칙적으로 평가한다.

Oppenheim(1965)에 의하면, 취업주부의 재정 관리는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부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고려하여 남편과 함께 소득사용계획을 세운다.

둘째, 주부의 월급일부를 공동기금으로 넣어둔다. 취업주부는 외출복, 교통비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과외지출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은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공동기금으로 남편은 전세금이나 주거비, 보험, 세금과 자동차유지비를 지불하고 부인은 음식물비 의복비 가계유지비와 문화교제비를 지불한다.

넷째, 각 가족구성원의 개인 용돈을 정한다.

다섯째, 신혼부부는 한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남편이나 부인의 소득을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한다. 자녀의 출산으로 부인은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감소하나, 자녀에게 비용이 많이 든다.

여섯째, 재정적 위기가 생겼을때 침착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한다. 부인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저축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의 문제이고 공동소득이라는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분노의 감정은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한 재정관리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가족들의 목표와 욕구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 가정의 재정불일치를 최소화시킨다.

2.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선행연구

가정이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은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소득 모두를 사용할 것인가, 자산축적과 재정안정을 위해 현재소득의 일부를 저축할 것인가를 선택해야한다. Wells(1959)에 의하면, 신혼기 가정중에서 대다수의 부인은 현재의 욕구와 상관없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해야한다고 믿는 반면, 남편은 현재 생활지출의 충족후에 저축을 해야한다고 믿었다. 금전의 기능에 대해 부인의 절반 이상이 '돈은 안정을 제공한다'가 일순위였으나, 남편은 '돈은 물질적 재화를 성취하는 수단이다'가 일순위였다.

Varcoe(1990)의 연구결과, 대부분의 가정이 실적과 같은 직업적 사건에 의해 저축을 하지 못하고, 투자 은퇴계획 자산과 유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재정관리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도(Godwin & Carroll, 1986) 저축, 재정목표, 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재정관리행동을 실천하는 가정은 적었다. 몇몇 연구들은 저축부족이 가계의 중요한 재정관리문제라고 지적하였다(Jeries, 1979 ; Katona, 1974 ; Williams, Nall and Deck, 1976).

근래에 이르러 부채분류는 사회문제로 대두하여 직장생활, 건강, 결혼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은 Caplovite의 "Consumer in Trobele" (1974)이라는 연구에서 부채가 유발하는 건강문제, 혼인, 압박감, 낮은 생산성, 실직간의 상관관계로 증명되었다. Hira 와 Leskiw(1982)는 재정관리의 실패에서 오는 부채의 종류와 그것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소비자자들의 신용상담의 욕구를 증진시키고 재정문제에 관한 지식을 확대시키며, 만성적인 재정불일치에 대한 잠정적인 교육에 기여하였다.

가계의 재정관리에 대한 만족감은 목표(goal)로 볼 수 있다. 만족감은 욕구충족을 통하여 성취되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관리기술은 욕구충족에 이용된다(Deacon and Firebaugh, 1981).

Schnittgrund 와 Baker(1983)에 의하면 도시 저

소득가정에서 금전을 다루고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낙관적이었으나 재정관리의 저숙과 투자부문은 상대적으로 불만족하였다. 가정의 재정관리에 자원관리의 체계론(System theory)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Titus, Fanslow and Hira, 1989) 지식이 많은 금전관리자가 합리적인 계획과 수행행동을 실천하였고 재정관리원리를 사용하는 관리자가 순자산과 재정적 만족감이 컸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생활수준에는 만족하였으나(Lansing and Morgan, 1955 ; Strumple, 1976 ; Andrew and Withey, 1976)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능력, 재정안정등과 같은 재정관리에는 불만족하였다(Andrew and Withey, 1976).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를 소득문제와 소비문제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윤정혜, 1986) 저소득층가계가 중간소득층가계에 비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예산기능과 구매기능이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으로 인해 운명론적 가치 지향을 갖게 되어 환경통제능력이 향상되지 않았거나, 낮은 교육수준때문이라고 보았다. 주부의 소비의식 및 소비행동을 교육정도와 경제수준별로 연구한 결과(이기춘, 1974)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의식이 매우 낮고, 경제수준과 교육정도가 낮은 계층일수록 소비생활에 대한 불만율이 높게, 미래의 생활수준향상에 대한 기대도가 낮았다. 또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계획적인 가계지출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 재정불일치란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가족의 목표,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 재정관리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차이나 불만족을 말한다. 즉, 금전관리, 저축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소비지출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주관적 인지도라고 할 수 있다.

3. 재정불일치와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가계소득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이 불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은 자유재량소득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 지출에 대한 불일치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있기에 자원분배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불일치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Williams and Berry, 1984).

(2) 교육

교육은 관련정보를 얻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교육받은 사람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정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재정에 대한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Williams, Nall and Berry 1984) Trave-Danielewicz(1978)도 주부의 교육수준은 소득적정도 인지에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은 심리적 소득(Psychic income)인 만족감을 증가시켜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고 재정에 대한 불일치를 감소시킨다.

(3) 부인의 취업유무

취업주부는 시간의 부족,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가족내의 성역할변화와 경제적 지위의 변화등이 일어난다(Berger, 1984). 몇몇 연구에 의하면(Ferber and Nicosia, 1972 ; Bahr, 1974) 취업주부는 가계의 제공자역할(Provider role)에 관한 결정이 증가되었다. 주부의 가계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클수록 자원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 때문에 경제자원을 효율화할때 경제문제를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김민정, 1984).

취업주부의 남편은 그에 대한 개인적 돌봄의 감소, 자녀양육과 가정 일에 대한 책임증가, 배우자의 야망지지, 가정내 남편의 지위침해등에 의해서 부부의 불일치와 스트레스를 받는다(Burke and Weir, 1976). 그러나 A. Booth(1977)에 의하면 취업주부 남편들은 가정주부 남편보다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4) 결혼지속년수

Rollins와 Cannon(1974)에 의하면 노년기의 결혼만족도가 초기단계와 같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 관계를(Curvilinear relationship) 나타냈다. Deacon과 Firebaugh는 중년기가정은 직업, 생활수준, 재정적 안정, 주거환경과 교육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다. 결혼지속년수가 길어짐에 따라 소득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더 관계적이 되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적어진다(Williams and Berry, 1984). 이와같이 결혼지속년수가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히고 있으나, 그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다.

(5) 가족원수

많은 수의 가족은 소비에 제약을 주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원분배에 있어 더 많은 타협을 요하게 된다(Williams and R. Berry, 1984). 가정의 재정관리 연구에서 Warren은 가정의 크기나 가족원수가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2) 사회심리적 변인

(1) 대화

대화는 재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재정에 대한 불일치를 표현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다. 가족각자의 목표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달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족들의 불만이나 가족들사이의 갈등은 훨씬 감소될 것이다.

(2) 생활태도

주부의 올바른 생활태도의 수립은 가정관리시 필요한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관리행동이나 관리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미래의 재정안정에 대한 기대와 예상되는 소득은 현재의 자원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riedman은(1959) 향상소득가설에서 가계는 현재 받는 소득보다 예상되는 일생소득에 따라 소비한다고 보았고, Katona(1960)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는 각 소득계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젊은 층일수록 낙관적이었다. 가정의 재정에 대한 안정과 악화의 인지는 재정적 만족감의 중요지수로 나타났다(Hafstrom and Dunsing, 1973 ; Yaar 1976 ; Hafstrom, 1983).

3) 재정관리변인

근래에는 과거보다 가족의 경제상황을 보다 주관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으로, 가계의 사회문화적·심리적 측면을 인식하고 가족의 태도와 행동이 가계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김민정, 1984).

Hasting과 Mietus(1977)는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보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 하였다. Hill은(1970) 자원사용에 관한 일관된 방법을 가진 가정이 그렇지 않는 가정보다 변화에 적응하고 계획을 이루는데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관리태도와 행동의 변화는 느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uncan and Hill, 1975).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계 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지속년수, 가족원수를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배우자와의 대화, 생활태도, 미래의 재정안정에 대한 인지를 사회심리학적 변인으로 재정관리태도와 재정관리행동을 재정관리변인으로 추출하여 이 변인들과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이는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 변인 및 재정관리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가?

<가설 1-1>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가족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배우자와의 대화, 생활태도,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재정관리변인(재정관리태도, 재정관리행동)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 변인과 남편과 부인의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총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일반적 사항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부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주부의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가족원수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사회심리적 변인은 배우자와의 대화, 생활태도,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하루동안에 일어났던 즐거운 일과 기분 나쁜 일을 이야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2문항으로 5점 리커트형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생활태도는 운명론적 및 지배론적 신념이나 태도를 측정한 Brim의 척도를 사용한 이정우(1980)의 논문을 참고로하여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재정관리변인

재정관리태도는 재정관리에 대한 일반적 원리와 특정한 태도에 관련된 Godwin과 Carroll(1986)의 재정관리태도 척도를 참고로 하여 5점 척도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재정관리태도 점수는 12점에서 60점까지 분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관리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6이다.

재정관리행동은 Godwin과 Carroll의 재정관리행동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렇다'는 1점 '확실하지않다' '아니다'는 0점을 주어 총 0~12점의 재정관리행동 점수를 만들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신뢰도 계수는 .78이다.

3) 재정불일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Williams등(1976), Jackson과 Beutler(1982), 오정옥(1990), 정선희(1987)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전관리 5문항, 저축관리 5문항, 투자관리 3문항, 부채관리 3문항, 소비지출 9문항으로 총 25개 문항을 만들었다. 총재정불일치 점수는 25점에서 125점까지 분포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불일치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주는 신뢰도계수는 각각 .58, .64, .79, .80, .69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마산, 창원, 진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과 주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0년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조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총 45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중 부실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336부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편은 111부, 주부는 225부이다.

자료의 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기위해 단 순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조사결과 및 분석

0-58점은 하집단, 59-68점은 중하집단, 69-78점은 중상집단, 79-99점은 상집단으로 재정불일치 인

조사대상자의 재정불일치 점수의 분포에 따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336)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111(33.0)	결혼지속년수 ¹⁾	비숙련직	45(13.4)
	여자	225(67.0)		판매숙련직	72(21.4)
	계	336(100.0)		사무직	144(42.9)
		전문관리직		75(22.3)	
남편의 연령	20~29세	59(17.6)		계	336(100.0)
	30~39세	110(32.7)	가족원수	유	104(69.0)
	40~49세	84(25.0)		무	232(31.0)
	50세이상	83(24.7)		계	336(100.0)
	계	336(100.0)			
부인의 연령	20~29세	94(28.0)	미래의 재정 안정인지	4년이하	91(27.1)
	30~39세	89(26.0)		5~19년	121(36.0)
	40~49세	123(36.6)		20년이상	124(36.9)
	50세이상	30(8.9)		계	336(100.0)
	계	336(100.0)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34(10.1)	생활태도 ²⁾	2명이하	46(13.7)
	고졸	132(39.3)		3~4명	165(49.1)
	전문대졸이상	170(50.6)		5명이상	125(37.2)
	계	336(100.0)	계	336(100.0)	
부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78(23.2)	배우자와의 대화	변화가 없을것이다.	45(13.4)
	고졸	158(47.0)		안정될 것이다.	217(64.6)
	전문대졸이상	100(29.8)		매우 안정될 것이다	74(22.0)
	계	336(100.0)	계	336(100.0)	
가계소득	60만원이하	74(22.0)	재정관리태도	지배론	104(31.0)
	60~100만원	182(54.2)		상황론	120(35.7)
	101만원이상	80(23.8)		운명론	112(33.3)
	계	336(100.0)	계	336(100.0)	
남편의 직업	하	55(16.4)	재정관리행동	하	105(31.3)
	중	154(45.8)		중	136(40.4)
	상	127(37.8)		상	95(28.3)
	계	336(100.0)		계	336(100.0)
부인의 취업유무	하	94(28.1)			
	중	144(42.9)			
	하	98(29.0)			
	계	336(100.0)			

1) Fitzsimmons등이 사용한 재정적 단계에 따라 결혼지속년수를 구분하였다.

- 2) ① 지배론적 생활태도(control orientation) :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위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관계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 신념과 태도
 ② 상황론적 생활태도(mediating orientation) : 인간이 주변환경을 지배하는가 혹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것은 그때마다 상황이 결정한다고 믿는 신념과 태도
 ③ 운명론적 생활태도(fate orientation) : 우주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이라 믿는 신념체계

표 2.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 인지정도(N=336)

집단	구분	부인의 불일치		남편의 불일치	
		빈도	백분비(%)	빈도	백분비(%)
하(0-58점)		10	4.4	7	6.3
중하(59-68점)		59	26.3	37	33.3
중상(69-78점)		121	53.7	48	43.3
상(79-99점)		35	15.6	19	17.1
계		225	100.0	111	100.0
평균(M)		71.56		70.56	
표준편차(S.D)		7.35		8.21	
범위(Range)		51~93점		48~99점	

표 3. 영역별 재정불일치의 일반적 경향(N=336)

재정불일치	평균(M)		표준편차(S·D)		범위(Range)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금전관리	2.61	2.62	2.66	2.80	5~21	5~25
저축관리	2.57	2.52	3.02	3.02	5~22	5~20
투자관리	3.34	3.26	1.94	1.81	5~15	6~15
부채관리	3.10	3.06	1.64	1.55	4~15	6~13
소비지출	2.93	2.88	4.60	4.72	14~42	9~39

지정도를 분류하였다(표 2).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하집단이 4.4%, 중하집단이 26.3%, 중상집단이 53.7%, 상집단이 15.6%였고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하집단이 6.3%, 중하집단이 33.3%, 중상집단이 43.3%, 상집단이 17.1%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과 부인이 재정관리에 대한 불일치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정불일치의 영역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남편과 부인 모두 투자관리점수가 가장 높았고 부채관리, 소비지출, 금전관리, 저축관리 순이었다. 즉, 남편과 부인 모두 투자관리영역에서 가장 높은 불일치가 나타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계는 예기치 못한 일로 불행에 자주 접하게 되므로,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증식시킬 필요성을 느낀 Varcoe(1990), 오정옥(1990), 정선희(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배경변인과 재정불일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인 배경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 재정관리변인별로 재정불일치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1) 부인이 인지한 재정불일치

부인이 인지한 재정불일치는 남편의 교육수준($p < .05$), 가계소득($p < .05$), 배우자와의 대화($p < .05$), 미래의 재정안정인지($p < .01$), 재정관리 행동($p < .001$)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편의 직업, 부인의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가족원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이 저축과 투자관리의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직업유형 직업지위뿐 아니라 가계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남편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소득의 부족과 관련되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고 사료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이 저축과 투자관리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Michael(1980) Danielewicz(1978) 문숙재(1985) 정선희(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교육수준이 낮은 부인일수록 가계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부족으로 가정내의 경제기능을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가계소득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100만원이상인 집단이 재정불일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지표와 경제문제 경험빈도는 부적 관계에 있다고 한 Zwaagstra(197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배우자와의 대화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많은 집단이 저축과 투자관리 불일치를 낮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Williams와 Berry(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 감정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가족간의 욕구충족에 따른 만족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태도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운명론적 생활태도를 가진 집단이 소비지출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열망과 운명론적 생활태도를 가진 가정일수록 가계의 재정문제를 더 경험하고 있다고 한 Heck(1980)의 연구와 일치

표 4. 배경변인에 따른 부인이 인지한 재정불일치

변인	구분	N	금전관리	저축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소비지출	계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24	2.76	2.94 A	3.68 A	3.10	2.90	3.00 A
	고 졸	85	2.56	2.54 B	3.33 B	3.13	3.01	2.88 A
	전문대졸이상	116	2.61	2.52 B	3.28 B	3.07	2.87	2.82 B
	계 및 F	225	1.24	5.21 **	3.98 *	0.31	1.96	3.98 *
부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49	2.56	2.85 A	3.59 A	3.18	2.90	2.94
	고 졸	102	2.63	2.41 C	3.28 B	3.03	2.96	2.83
	전문대졸이상	74	2.61	2.62 B	3.27 B	3.13	2.90	2.86
	계 및 F	225	0.31	9.94 ***	4.65 *	1.47	0.32	2.29
가 계 소 득	60만원이하	49	2.64	2.61	3.39	3.05	2.96	2.89
	60~100만원	123	2.64	2.61	3.39	3.15	2.94	2.90
	101만원이상	53	2.51	2.45	3.18	3.01	2.84	2.76
	계 및 F	225	1.15	1.50	2.11	1.52	0.89	4.35 *
배 우 대 화 의	하	33	2.72	2.87 A	3.57 A	3.16	2.92	2.98 A
	중	154	2.59	2.54 A	3.34 A	3.12	2.91	2.85 B
	상	38	2.61	2.46 B	3.15 B	2.95	2.99	2.82 B
	계 및 F	225	0.77	5.20 **	3.77 *	1.82	0.32	3.08 *
생 활 태 도	지배론	25	2.58	2.62	3.31	3.20	2.76 A	2.82
	상황론	159	2.63	2.58	3.34	3.11	2.89 A	2.86
	운명론	41	2.57	2.51	3.36	3.00	3.16 B	2.92
	계 및 F	225	0.23	0.31	0.05	1.12	6.34 **	1.09
미 래 의 재 정 안 정 인 지	변화가없을것이다	26	2.84 A	2.78 A	3.32	3.06	2.99	2.97A
	안정될 것이다	149	2.60 B	2.61 A	3.39	3.14	2.95	2.89 A
	매우안정될것이다	50	2.53 B	2.37 B	3.20	2.98	2.83	2.74 B
	계 및 F	225	3.09 *	4.64 *	1.67	1.74	1.24	6.74 **
재 정 태 관 리	하	66	2.54	2.71	3.60 A	3.40 A	2.87	2.92
	중	89	2.58	2.52	3.36 A	3.08 B	2.93	2.85
	상	70	2.76	2.74	3.11 B	3.00 B	2.96	2.90
	계 및 F	225	1.88	2.77	4.58 *	3.95 *	.20	.93
재 정 행 관 동 리	하	59	2.92 A	3.01 A	3.54	3.23 A	3.00	3.08 A
	중	102	2.59 B	2.62 B	3.33	3.13 A	2.89	2.86 B
	상	64	2.48 B	2.14 C	3.25	2.90 B	2.98	2.73 C
	계 및 F	225	7.49***	25.95***	2.08	4.43 *	.85	14.83***

*p<.05 **p<.01 ***p<.001

※ 같은 문자표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한다.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에 따른 부인의 재정 불일치는 재정상태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한 집단이 금전과 저축관리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문숙재(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재정관리태도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재정관리태도가 下인 집단이 투자와 부채관리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재정관리행동에 따른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재정관리행동이 낮은 집단이 금전과 저축, 부채관리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2) 남편이 인지한 재정불일치

남편이 인지한 재정불일치는 남편의 교육수준(p<.01) 가계소득(p<.01) 미래의 재정안정인지(p<.05)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나,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결혼지속년수, 배우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남편이 인식한 재정불일치

변인	구분	N	금전관리	저축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소비지출	계
남편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0	2.74	2.50	3.83 A	3.10	3.10 A	3.00 A
	고 졸	47	2.60	2.64	3.31 B	3.10	3.01 A	2.90 A
	전문대졸이상	54	2.61	2.41	3.10 B	3.02	2.73 B	2.72 B
	계 및 F	111	0.26	1.75	7.18 **	0.34	5.03 **	5.84 **
가 계 소 득	60만원이하	25	2.81 A	2.70	3.36	3.07	3.04	2.97 A
	60~100만원	59	2.66 A	2.53	3.30	3.04	2.86	2.83 A
	101만원이상	27	2.36 B	2.33	3.07	3.10	2.77	2.67 B
	계 및 F	111	4.86 **	2.53	1.77	0.12	1.82	5.60 **
취 업 유 무	무	78	2.64	2.53	3.21	3.08	2.82	2.80
	유	33	2.57	2.50	3.38	3.02	3.03	2.87
	계 및 t	111	0.53	0.23	1.36	0.55	2.15 *	1.03
가 족 원 수	2명이하	13	2.71	2.65	2.97	2.00 A	2.75	2.74
	3~4명	49	2.66	2.44	3.30	2.00 A	2.91	2.83
	5명이상	49	2.56	2.56	3.29	2.33 B	2.88	2.83
	계 및 F	111	0.59	0.74	1.65	4.87 **	0.48	0.42
생 활 태 도	지배론	29	2.52	2.49	3.25	3.09	2.67 A	2.73
	상황론	63	2.59	2.48	3.24	3.06	2.94 B	2.83
	운명론	19	2.84	2.68	3.33	3.02	2.99 B	2.95
	계 및 F	111	2.02	0.88	0.18	0.12	3.37 **	2.69
미 래 의 재 정	변화가없을것이다	19	2.69 A	2.81 A	3.25	3.18	2.89	2.91 A
	안정될 것이다	68	2.71 A	2.54 A	3.26	3.06	2.91	2.86 A
	매우안정될것이다	24	2.29 B	2.22 B	3.25	2.97	2.79	2.65 B
	계 및 F	111	5.63 **	5.73 **	0.01	0.82	0.14	4.55 *
재 정 태 관 도	하	39	2.56	2.41	3.67 A	3.22	3.07	2.92
	중	47	2.59	2.49	3.21 B	3.07	2.79	2.77
	상	25	2.83	2.79	3.02 B	2.81	3.10	2.94
	계 및 F	111	1.31	2.03	6.09 **	2.84	3.79 *	2.75
재 정 행 관 동 리	하	35	2.79 A	2.75 A	3.26	3.17	2.93	2.93
	중	42	2.50 B	2.47 A	3.28	3.03	2.86	2.78
	상	34	2.73 A	2.31 B	3.22	2.98	2.95	2.81
	계 및 F	111	3.21 *	3.85 *	.07	.99	.29	2.45

*p<.05 **p<.01

※ 같은 문자표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자와의 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전문대졸이상의 집단이 투자관리와 소비지출에 대한 불일치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수준과 도시가계의 경제문제간에 의미있는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Williams, Nall and Deck(1976)의 견해와 차이를 보이나, 교육수준과 직업을 결합시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경제문제를 덜 겪는다고 보고한 S.E. Williams(1974)의 견해와 일치한다.

가계소득에 따른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101만원 이상인 집단이 금전관리불일치를 낮게 느끼고 있었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이 경제적 지출에 대한 불일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Williams and Berry(198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부인이 직업이 있는 집단이 소비지출 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부인의 취업으로 소비기대 수준이 상승하나, 실제적인 소비지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족원 수에 따른 남

편의 재정불일치는 가족원이 5명이상인 집단이 부채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가족의 크기가 부채를 청산하는 가족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한 Marlowe(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생활태도에 따른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지배론적 생활태도를 가진 집단이 소비지출 불일치를 낮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재정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지배하겠다는 적극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에 따른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매우 안정될 것이라고 한 집단이 금전과 저축관리 불일치를 낮게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미래의 재정에 대한 전반적 불안감, 불확실성이 감소할 수록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금전과 저축관리를 수행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재정불일치를 감소시킨다고 사료된다.

재정관리태도에 따른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재정관리태도가 下인 집단이 투자와 소비지출불일치를 높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변인 및 재정관리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가설 1-1> <1-2> <1-3>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3) 주요변인과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

사회인구학적·사회심리적 변인과 남편과 부인의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6, 표7과 같다.

부인의 재정관리태도는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와 낮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r=.12$) 즉, 미래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느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정관리행동이 합리적이었다. 부인의 재정관리행동과 결혼지속년수, 가족원 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부인의 재정관리행동이 합리적이었다. ($r=-.23$ -.16) 이는 재정관리결정이 보다 단순하고,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남편의 재정관리태도는 남편의 직업과 $r=.17$ 로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재정관리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남편의 재정관리행동은 결혼지속년수 ($r=-.37$) 가족원 수($r=-.25$)와 부적 상관관계

표 6. 부인의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225)

주요변인	1	2	3	4	5	6	7	8
1 남편의 교육수준	1.00							
2 부인의 교육수준	.59***	1.00						
3 결혼지속 년수	-.36***	-.53***	1.00					
4 가족원수	-.31***	-.47***	.55**	1.00				
5 배우자와의 대화	.20**	.22**	-.18**	-.13*	1.00			
6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13*	.15*	-.24***	-.09	-.12*	1.00		
7 재정관리태도	.82	.00	-.08	-.09	.05	.12*	1.00	
8 재정관리행동	.17**	.22**	-.23***	-.16**	.30***	.21**	.04	1.00

표 7. 남편의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n=111)

주요변인	1	2	3	4	5
1. 남편의 직업 ³⁾	1.00				
2. 결혼지속 년수	-.05	1.00			
3. 가족원수	-.00	.69***	1.00		
4. 재정관리태도	.17*	.01	.03	1.00	
5. 재정관리행동	.08	-.37***	-.25**	.11	1.00

3)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였음

를 나타내었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재정관리행동이 합리적이었다.

4) 재정관리변인과 재정불일치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와의 관계는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8, 9).

재정관리행동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와의 관계는 $r = -.35$ 로 재정관리행동점수가 낮을수록 부인의 재정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인의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경제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윤희(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재정관리행동과 남편의 재정불일치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보여서 재정관리행동이 비합리적일수

록 남편의 재정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r = -.22$).

재정관리태도와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 3을 부분적으로 긍정하였다.

5) 독립변인이 재정불일치에 미치는 영향력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 재정관리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본 결과는 표 10, 11과 같으며, 이를 인과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⁴⁾.

부인의 재정불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관리행동($\beta = -.34$) 가계소득($\beta = -$

표 8. 부인의 재정불일치와 재정관리요인과의 상관관계 (n=225)

주요변인	금전관리	저축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소비지출	재정불일치
재정관리태도	-.08	-.03	.26***	.18**	-.04	.04
재정관리행동	-.24***	-.45***	-.15*	-.22***	.02	-.35***

표 9. 남편의 재정불일치와 재정관리요인과의 상관관계 (n=111)

주요변인	금전관리	저축관리	투자관리	부채관리	소비지출	재정불일치
재정관리태도	-.16	-.25*	.33***	.16	.05	-.01
재정관리행동	-.12	-.32***	-.08	-.07	-.05	-.22**

표 10. 부인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225)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partial R ²	R ²
재정불일치	재정관리행동	-.966	-.335***	.124***	.124
	가계소득	-.675	-.140*	.019***	.143
재정관리행동	배우자와의 대화	.417	.253***	.089***	.089
	결혼지속년수	-.463	-.152*	.032***	.121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627	.141*	.019***	.140

표 11. 남편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n=11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partial R ²	R ²
재정불일치	가계소득	-1.42	-.268**	.103***	.103
	남편의 교육수준	-2.71	-.264**	.071***	.174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2.52	-.213*	.055***	.229
	재정관리행동	-0.51	-.178*	.031***	.260
재정관리행동	주부의 연령	-0.89	-.315***	.099***	.099

*p<.05 **p<.01 ***p<.001

주4) 명목변인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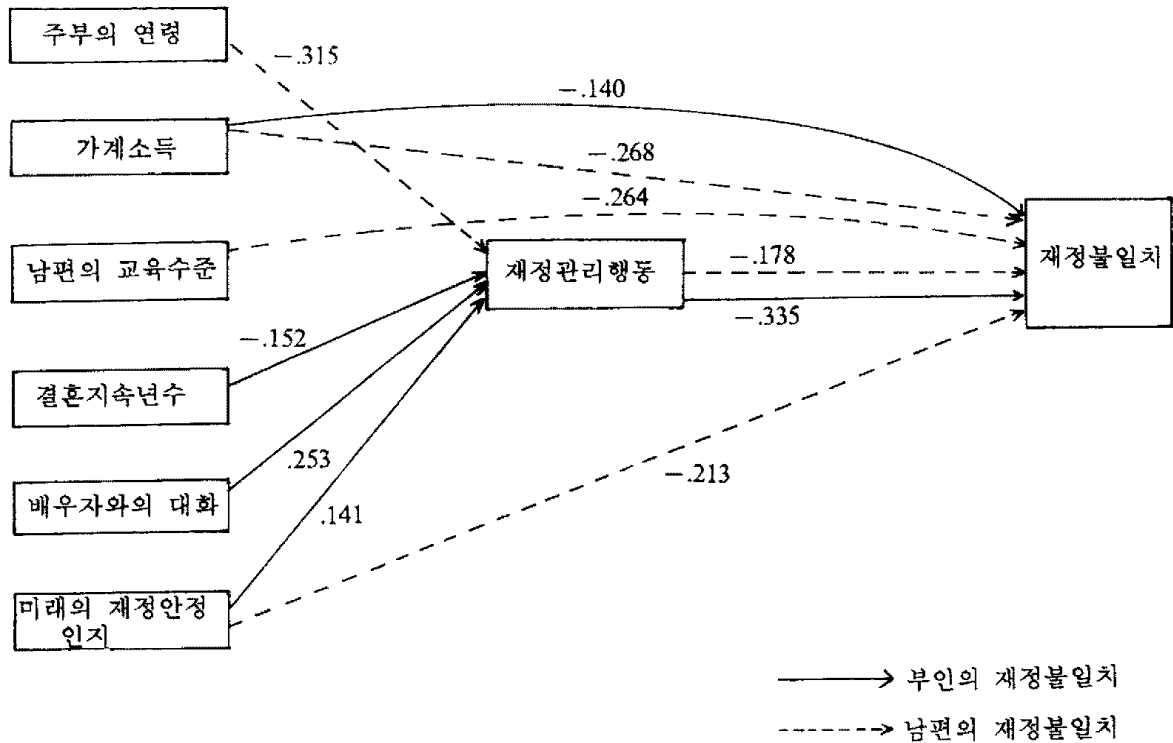


그림 2. 남편과 부인의 가계 재정불일치.

1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관리행동이 비합리적일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인의 재정불일치가 높았다. 이 두변인은 부인의 재정불일치를 14% 설명한다. 부인의 재정관리행동은 배우자와의 대화, 결혼지속년수, 미래의 재정안정인지($\beta = .25, \beta = -.15, \beta = .14$)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배우자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미래의 재정안정인지가 긍정적일수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William과 Berry(198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남편의 재정불일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소득($\beta = -.27$) 남편의 교육수준($\beta = -.26$) 이었고 다음은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재정관리행동의($\beta = -.21, \beta = -.18$)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미래의 재정안정에 부정적일수록, 재정관리행동이 비합리적일수록 남편의 재정불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의 변인에 의하여 남편의 재정불일치는 26% 정도가 설명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의 재정문제에 소득지수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 Orshansky(1969) 김민정(1983) 윤정혜(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의 재정관리행동은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beta = -.32$) 합리적이였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도시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변인들의 그 관련성을 분석하여 재정불일치의 개념을 파악해보고, 나아가 가정내의 재정불일치를 극소화하고 경제복지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산, 창원, 진해에 거주하는 남편과 부인은 재정관리에 대한 불일치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영역별로는 남편과 부인 모두 투자관리점수가 가장 높았고 부채관리, 소비지출, 금전관리, 저축관리순이었다.

2)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 재정관리변인에 따른 가계의 재정불일치는 부인은 남편의 교육수

준, 가계소득, 배우자와의 대화,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재정관리 행동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고, 남편은 남편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3) 사회인구학적 사회심리적변인과 재정관리태도 및 행동과의 관계는 부인의 재정관리태도는 미래의 재정안정인지와 정적관계를 보였다. 부인의 재정관리행동은 배우자와의 대화, 부인의 교육수준, 미래의 재정안정인지, 남편의 교육수준과 정적관계를, 결혼지속년수와 가족원수와는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남편의 재정관리태도는 남편의 직업과 정적관계를 보였고 남편의 재정관리행동은 결혼지속년수와 가족원 수와는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4) 재정관리변인과 가계의 재정불일치와의 관계는 재정관리행동이 비합리적일수록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관리태도와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5)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탐색에서는 부인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재정관리행동을 비합리적으로 수행할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부인의 재정불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재정관리행동은 배우자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미래의 재정안정인지가 긍정적일수록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을 수행하였다.

남편의 재정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미래의 재정안정에 변화가 없다고 느낄수록, 재정관리행동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지 않을수록 남편의 재정불일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중도시 가계의 재정불일치는 남편과 부인 모두 높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부채관리, 소비지출과 금전, 저축관리에 대한 재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의 경제생활만족도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남편과 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 및 증식에 관한 구체적이고 건전한 지식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재정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원효율화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가정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인의 재정불일치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상태를 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정의 경제적 자원의 충분한 준비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보다 더 안정되어질 수 있어야 가계의 재정불일치가 감소될 것이다.

셋째, 남편과 부인의 재정불일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소득과 재정관리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비교적 가족구성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이기춘 1986) 제한된 생활조건하에서 가족원의 다양하고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이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겠다.

끝으로, 가정의 재정불일치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 세밀하고 표준화된 설문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모형에서 제외된 다른 중요변수들을 찾아내어 모형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수준과 생활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불일치에 대한 연구와 부채가 있는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채관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참고문헌

- 1) 김영숙(1983). 장기생활 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59-73.
- 2) 김민정(1984).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 문숙재(1985). 도시주부의 저축행동에 관한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 46집.
- 4) 오정옥(1990). 주부의 가치관과 소비생활 문제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8권, 창원전문대학.
- 5) 윤정혜(1986).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

- 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67-88.
- 6) 이정우(1980).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이기춘(1986). 신정가정 경제학. 서울 : 교문사.
 - 8) 정선희(1987). 도시주부의 재정문제 인지정도와의 해결방법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최윤희(1983).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Berger, P.S.(1984). Mexican-american wife's satisfaction with resource use as influenced by employment statu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 11) Beutler, I.F. & Mason, J.W.(1982). Family cashflow budget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 3-12.
 - 12) Booth, A.(1977).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5-650.
 - 13) Crow, J.H.(1961). Financial management in relation to family values and Concepts of financial security.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 14) Deacon, R.E. & Firebaugh, F.M.(1981).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and Bacon.
 - 15) Freeman, R.C. & Due, J.M.(1961). Influence of goals on family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53(6).
 - 16) Friedman, M.(1980).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ew York.
 - 17) Godwin, D.D. & Carroll, D.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s and behaviou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18) Hafstrom, T.L. & Dunsing, M.M.(1973). Level of living : Factors influencing the homemaker's satisfac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2), 119-132.
 - 19) Hastings, P. & Mietus, N.(1977). Personal Finance. New York : McGraw-Hill.
 - 20) Hazlitt, H.(1973). The Conquest of Poverty. New York : Arlington House.
 - 21) Heck, K.Z.(1980). Identifying insolvent Households. *Journal of Home Economics*, 72(4).
 - 22) Heck, R.K.(1981). An economic analysis of interstate differences in non-business bankruptcy and chapter Thirteen rat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5, 13-31.
 - 23) Hira, T.K. & Leskiw, K.(1982). Importance of financial counseling for families in debt. *Journal of Home Economics*, 28-30.
 - 24) Jackson, D.D & Beutler I.(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trategies and perception of consumption.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28th, Annual Conference, 147-151.
 - 25) Jeries, N.(1979). Marital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26-233.
 - 26) Katona, G.(1974). Psychology and consumer econom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1-8.
 - 27) Kyrk, H.(1953). The Family in the American Econom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 28) Marlowe, J.(1981). Financ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Successful debt liquid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 382-389.
 - 29) Mullis, R.J. & Schnittgrund K.P.(1982). Budget behaviour : Variance over the life cycle of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113-120.
 - 30) Nickell, Rice and Tucker.(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New York : John Willey and Sons, Inc.
 - 31) Oppenheim, I.(1965). The Family as Consumers.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 32) Rollins, B.C. & Cannon, K.L.(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life cycle : A re-evalu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71-282.
 - 33) Rosen, D.L. & Granbois, D.H.(1983). Determinants of role structure in family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0.
 - 34) Schnittgrund, K.P., & Baker, G.(1983). Financial management of low-income urban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261-270.
 - 35) Shepard, L.(1984). Accounting for the rise in consumer bankruptcy rat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8, 213-230.
 - 36) Stillman, R.J.(1979). Guide to personal finance.

-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 37) Titus, P.M., Fanslow, A.M. Hira, T.K.(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gnagers' competenc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7(4).
- 38)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7.
- 39) Wells, H.L.(1959).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of young families. *Journal of Home Economics* 51(6).
- 40) West, D.A. & Wood, G.L.(1972).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Houghton Mifflin, Boston Mass.
- 41) Willims, F.L., Nall, M. & Deck, P.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3).
- 42) Williams, F.L. & Berry, R.(1984). Intensity of family disagreement over finances and associated factor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8, 33-53.
- 43) Wright, L.A.(1978). Families in debt. *Journal of Home Economics*.

